

“시나리오 읽고 모성애에 끌렸죠”

염정아, 14년만에 스타일리 복귀... 영화 ‘장산범’ 17일 개봉

영화 ‘장화, 홍련’에서 독한 새엄마 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염정아(사진)가 14년 만에 스타일로 돌아왔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장산범’에 출연하는 염정아는 9일 삼청동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화, 홍련’(2003)의 새엄마와 정반대로 이번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엄마 역할”이라며 “모성애에 이끌려 작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염정아는 이번 작품에서 아들을 잃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 희연 역을 맡았다. 아들을 잃고 장산에 내려가 살게 된 희연은 그곳에서 우연히 숲 속에서 헤매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딸과 이름과 목소리가 같은 소녀가 집에 찾아온 이후 희연의 가족은 미스터리한 일에 휘말리게 된다.

시나리오를 직접 쓴 허정 감독은 “염정아는 예민하고 불안한 감정은 물론이고 정반대의 따뜻한 모성애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업하면서부터 그녀를 상상하고 썼다”고 했다.

“시나리오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모성애에 끌렸던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친 뒤에도 공포 때문이 아니라 모성애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후유증을 겪었죠. 모성애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는 감정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그저 자극적이거나 한 공포영화와 달리 더 많은 층에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스티리’를 표방한 영화답게 ‘장산범’은 소리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데 집중한다. 시어머니 귀에는 죽은 언니의 목소리가, 희연에게는 잃어버린 아들 목소리가 들린다. 너무나 듣고 싶고, 그리워했던 소리지만 돌아보면 상상했던 소리의 주인공은 그 자리에 없다.

염정아는 “촬영을 마친 뒤 후시 녹음을 통해 소리를 입혔기 때문에 소리를 상상하면서 연기를 해야 하는 점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장화, 홍련”과 ‘장산범’으로 염정아에게는 ‘스틸러 킴’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지만, 정작 관객으로서 공포영화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한다.

“제가 워낙 겁쟁이여서 공포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받은 눈을 감고 봐요. ‘장산범’도 제가 찍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그럼 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보는 거랑 연기하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웃음)”

그는 “연기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코미디”라며 “코미디가 나의 실제 성격과도 가장 잘 맞는다”고 말했다.

“장산범”은 한국 영화계에 보기 힘든 공포물이기도 하지만, 여배우를 원톱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염정아는 “지금 제작되는 영화 중에도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여배우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캐릭터 자체가 별로 없는 반면 남자 배우들은 차기작들이 두세 개씩 기다리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991년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데뷔한 이래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꾸준



한 활동을 해 온 염정아는 자신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으로 ‘장화, 홍련’을 꼽았다.

“20대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장화, 홍련’의 김지운 감독을 만나서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가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조금씩 알아간 것 같습니다. 배우가 된 것에 회의를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배우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죠.”

두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한 그는 “특히 요즘에는 경력이 단절돼서 다시 일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은데 ‘일하는 엄마’인 것이 너무 좋다”며 “주부의 역할 외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잭 블랙 다시 만나 반가워요”

‘무한도전’ 1년 7개월 만에 미서 재회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멤버들이 미국에서 할리우드 코미디 배우 잭 블랙과 1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사진)

잭 블랙은 지난해 1월 ‘무한도전’에 출연해 한국 예능 신고식을 지른 바 있다.

MBC는 9일 “멤버들이 지난 6월 5박6일 일정으로 미국에 갔는데,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잭 블랙의 격한 환영을 받았다”며 “잭 블랙은 멤버들을 위해 ‘요상한 미국 영화 오디션’을 진두지휘하며 멤버들을 골탕 먹였다”고 전했다.

잭 블랙은 또 한국가요 퀴즈에 재도전했으며 멤버들의 노래방 애창곡인 임재범의 ‘고해’, 김범수의 ‘보고싶다’를 듣고 느낀 대로 재연해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고 한다.



잭 블랙은 자신의 SNS에 멤버들과의 만남 사실을 알리며 반가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요~ 무한도전! LA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멤버들과 노래방 애창곡인 임재범의 ‘고해’, 김범수의 ‘보고싶다’를 듣고 느낀 대로 재연해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고 한다.

연협뉴스

최진실 딸 준희, 외할머니와 방송 출연

오늘 ‘속보이는TV’

갈등해소 역할 기대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준희(14) 양이 오는 10일 KBS 2TV ‘속보이는TV 인사이드’에 외할머니와 함께 출연한다.

최 양은 최근 SNS를 통해 외할머니의 상습 학대를 주장해 대중의 우려를 낳았다. 오빠 환희 군의 신고로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으며 최 양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부터 외할머니 정옥순 씨와 꾸준히 연락을 취해왔고, 한 달 전에는 직접 준희를 만났다”며 “우려한 것과 달리 쾌활하게 제작진을 맞은 준희 양은 유독 할머니에게만 날을 세웠다.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며 “방송에서 두 사람의 속내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8시 55분 방송.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여름기획 다큐멘터리 3일 <떠나면 보인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좌중우를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죽어야 사는 남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재)		00 애니캐러리 30 고행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허하연드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편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5 텔레몬스터 (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10 여름휴가에 읽으면 좋은 고전 시리즈 서가식당 (재)	00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00 뽀글아 사랑해 (재) 3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름방학기획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여행방블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매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이름 없는 여자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광복절기획 KBS 스페셜 55 숨터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문화기획 낭만 오디세이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미래에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뉴스 금지>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가지잡과 불고기 크레이프샌드위치)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투비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당동영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차분 활이버지네 경사 났네>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묘의(黃龍), 천 년의 전설> 14:30 호기심나라 오락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골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이퍼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영 유치원 1~2(재) 17:15 뽀뽀뽀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겨울로 가는 길 뉴질랜드 여행은 영화처럼 무비로드> 21:30 한국기행 <영동찾아 섬관리 복더워 잡는 바다맛 도초도> 21:50 과학 다크 비오드 <교통 혁명의 신호탄, 하늘 나는 자동차>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0일(음 6월 19일 己巳)	
子	48년생 상호 교체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60년생 대응하기에 용이한 성국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72년생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더 나아가야 할 길 목이다. 84년생 재조명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3, 57	午	42년생 의미 있는 교류가 있을 것이다. 54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66년생 중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리라. 78년생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90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92, 81
丑	49년생 표면화 시킨다면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61년생 전혀 딴 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73년생 진용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복잡다단한 국량이나 부지런히 행하여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87	未	43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5년생 효율성을 따져라. 67년생 근본 원인을 피해야 할 것이다. 79년생 인식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다. 91년생 확신을 갖고 한 방 날려도 될 시기가니라. 행운의 숫자 : 54, 12
寅	50년생 중요한 일으므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62년생 진법을 빼면서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74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86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이니 빨리 청산 하자. 행운의 숫자 : 32, 65	申	44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6년생 약간 변할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하노라. 68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숙고해 볼 일이다. 80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차 확대일로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20, 72
卯	51년생 원리 원칙대로 대처해야만 훗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63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세이니 주저하지 말고 본계도로 진입토록 하라. 75년생 발전적인 이동수이다. 87년생 철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80, 12	酉	45년생 미리 서둘러야한다. 57년생 빈틈이 없어야만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느니라. 69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원칙과 예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01, 95
辰	52년생 급작스런 변화가 보일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만 할 것이다. 64년생 앙상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76년생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되는 꼴이다. 88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07	戌	46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핵심 가치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70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국면에 놓인다. 82년생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3, 50
巳	53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65년생 획기적인 발전성이 있어 보이나 수용한다면 유익하리라. 77년생 중용을 유지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9년생 원칙에 따라서 똑바로 체계를 세울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3, 31	亥	47년생 판국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59년생 양초가 있는 급류로 휩쓸려 가는 형상이다. 71년생 마주 대하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83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입으리라. 행운의 숫자 : 42, 28